

2025년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 시대의 리스크 트렌드

| 글로벌 이슈 |

김진익 수석연구원

요약

2025년 글로벌 리스크 환경은 다양한 리스크가 상호작용하며 복합위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중 사이버·기후·자연재해 리스크가 규모와 파급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AI·신기술 리스크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정학적 갈등과 사회 분열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며 공급망·에너지·금융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어, 보험산업은 예방 중심의 복원력 플랫폼으로의 역할 확장이 요구됨

- 2025년 글로벌 리스크는 사이버·기후·지정학·AI 리스크가 서로 연결된 복합위기(Polycrisis)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 Allianz¹⁾와 AXA²⁾ 보고서 모두 2025년의 리스크 환경을 '단일 사건이 아닌 다중 리스크의 연쇄적 발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금융·정치·사회 전반의 동시적 충격을 초래함
 - 기후·사이버·지정학·사회적 분열·AI 확산 등의 리스크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실제 발생 양상은 서로 촉발·증폭되는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음
 - 이러한 복합위기 구조는 전통적 리스크 평가로는 대응이 어려워, 정부·기업·보험산업이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표 1〉 2025년 기관별 글로벌 10대 리스크 비교

순위	알리안츠(Allianz) 기업 리스크(전문가 대상)	악사(AXA) 미래 리스크(전문가 대상)
1	사이버 사건(Cyber incidents), 38%	기후 변화(Climate change)
2	사업 중단(Business interruption), 31%	지정학적 불안정(Geopolitical instability)
3	자연재해(Natural catastrophes), 29%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4	법률 및 규제 변경(Changes in legislation), 25%	AI 및 빅데이터(AI and big data)
5	기후 변화(Climate change), 19%	사회적 긴장 및 운동(Social tensions)
6	화재 및 폭발(Fire, explosion), 17%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Natural resources & biodiversity)
7	거시경제 발전(Macroeconomic developments), 15%	거시경제(Macroeconomics)
8	시장 변동(Market developments), 14%	에너지 리스크(Energy risks)
9	정치적 리스크 및 폭력(Political risks), 14%	금융 안정성 리스크(Financial stability)
10	신기술(New technologies), 10%	인구 구조 변화(Demographics)

주: 알리안츠 수치는 중복 응답비율이며, 악사 자료의 경우 순위만 발표됨

자료: Allianz Commercial(2025. 1.), "Allianz Risk Barometer 2025", p. 4; AXA(2025. 6.), "AXA Future Risks Report 2025", p. 10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사이버 사건은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AI 확산과 결합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음

1) Allianz Commercial(2025. 1. 15.), "Allianz Risk Barometer 2025"

2) AXA(2025. 6.), "AXA Future Risks Report 2025"

- Allianz는 사이버 사건을 38%로 1위, 20개국·8개 산업에서 1순위로 제시했으며 데이터 유출·랜섬웨어·클라우드 장애가 주요 리스크로 확인되고 있음
 - AXA에서도 사이버 사건(보안)은 전문가 기준 3위로, AI 기반 공격, 개인정보 집단소송 등 기술적·비기술적 위험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AI 및 빅데이터, 그리고 신기술은 처음으로 Allianz Top10에 진입해, 알고리즘 책임·데이터 오남용·AI 윤리 등의 문제가 새로운 규제 및 보험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보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험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손해 규모의 급증으로 보험회사의 인수여력과 보험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 Allianz 보고서에서 글로벌 리스크 기준으로 자연재해는 3위(29%), 기후 변화는 5위(19%)로 기록되며,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사건의 증가가 재보험 비용과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있음
 - AXA 역시 기후 변화를 전문가 5년 연속 1위 리스크로 선정했으며, 기후 리스크 공시 규제 강화로 기업의 물리적·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기후위기는 자연재해 → 사업중단 → 물가 상승·식량안보 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연쇄효과를 유발하며 장기적 국가·산업 리스크를 악화시킴
- 지정학적 갈등과 사회적 분절은 공급망·에너지·금융 리스크를 동시 촉발하는 하이브리드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음
- AXA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문가 기준 2위이며, 일반 응답자의 79%가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2024~2025년 갈등 수준은 장기적 불안정을 암시하고 있음
 - 지정학적 갈등은 해상물류 차질, 에너지 가격 변동, 금융 규제 충돌 등 실물·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을 만들어냄
 - 사회적 분절(Fragmentation)은 정책 신뢰 저하·정치 양극화·민주주의 지지도 약화 등을 초래해 장기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낮추는 것으로 AXA 보고서는 진단함

〈표 2〉 복합위기 연결 예시

리스크	상호 연동되는 위험
사이버 공격	사업중단·정치불안·공급망 리스크 증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 사업중단 → 인플레이션·식량안보 위기
지정학 불안	에너지 가격 변동·해상물류 차질 → 물가·금융불안
AI 확산	사이버 공격 고도화·규제 리스크·사회 양극화
사회 분절	정책 신뢰 저하 → 규제 일관성 약화 → 기업 불확실성 증가

- 보험산업은 단순한 위험 이전 기능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복원력 기반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주요 보험회사들은 데이터·AI 기반 조기경보, 기후 적응 솔루션 등 사전예방형 가치 강화를 강조하며, 복합위기 시대에는 전통적 보험 외에 공공-민간 협력, 보험연계증권, 지수보험 등 구조적 대응수단 확대가 필요함
 - 보험산업은 예측·경보·완화·회복의 전 주기적 복원력 생태계 구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